

전통적인 생활의 축소도

가혹한 기상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지어진 집들

게라마 제도의 오래된 가옥은 가장 강한 태풍도 견뎌낸다는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갖고 지어졌습니다. 바람을 견디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된 건축 기술인 짜맞추기는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인** 다카라가 주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게라마 제도의 가옥은 두께 수 피트의 산호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높은 담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담에 쌓은 산호 덩어리는 한 치의 틈도 없이 짜맞추어지도록 형태가 다듬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친 산호 덩어리를 쌓아올리는 일반적인 방법보다 훨씬 고가의 기술입니다(이 담들에는 자연 방풍림으로서 기능하는 후쿠기 나무가 나란히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게라마에서는 주택 구획을 지상에서 수 피트 아래로 파내려가 가옥을 이 낮은 지대에 건설함으로써 바람을 맞받는 것을 피했습니다. 나아가 지붕은 거대하고 무겁게 만들어져 가옥을 지면에 내리눌렀습니다. 다카라가 주택의 지붕은 네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나무 줄대(라스), 그 다음에 흙, 그리고 무거운 붉은 기와를 쌓았으며, 그 위에 회반죽을 두텁게 발라 전체를 고정했습니다. 네 변은 모두 같은 길이이며, 경사가 완만한 지붕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라마 제도의 가옥 지붕은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팔작집 지붕(앞면과 뒷면에 경사가 진 큰 두 지붕이 있고, 옆면에 조금 작은 지붕이 있다)보다도 훨씬 합리화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과 비에 강하다

다카라가 주택의 정면 현관 바로 왼쪽에 있는 가장자리쪽 아래를 결눈으로 보면 집 반대쪽까지 곧장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태풍과 스콜이 지나간 뒤에 집이 잘 마르도록 공기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또한 모래 지면도 많은 빗물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의 처마는 비와 태양을 피하기 위해 깊게 만들어졌습니다. 처마는 매우 단단한 마키나무(일본 특산의 상록 교목)로 만들어진 가는 기둥이 받치고 있습니다.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던 이 나무를 사용해 기둥 전체의 교체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카라가 주택의 기둥은 부분적으로 보수되어 있습니다.

풍수와 불단

다카라가의 주택은 따뜻한 여름 바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남쪽에 면해 있습니다. 입구에 놓인, 힌퐁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독립된 벽은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악령을 내쫓기 위한 이중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성은 보통 힌퐁 오른쪽에서 집으로

들어가 공식적인 집 ‘정면’으로 가고 여성과 일꾼은 집 뒤로 이어져 있는 왼쪽에서 들어갑니다.

다카라가의 방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옆으로 누워 자는 사람의 모습과 집을 겹쳐 상상해주세요. 머리는 집의 입구, 배는 집의 한가운데, 엉덩이는 집 뒤입니다. 방은 이 순서를 따릅니다. 중요한 손님은 현관으로 들어와 정면에 가까운 방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불단(佛壇)은 집의 중심인 배에 있습니다. 한편, 모든 종류의 부정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예를 들면 부엌, 화장실, 돼지우리는 앞에서 말한 사람의 등이나 발 부위에 해당하는 집의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카라가에서는 불단에 마키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라마의 집에서는 불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수한 실용성이라는 점에서는 불단이 집 전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구조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불단은 사망한 가족의 혼을 모시는, 비유하자면 집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게라마 제도를 돌아볼 때, 허물어진 산호 담에 둘러싸인 공터에 보이는 구획을 발견한다면,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물론 구획에 들어가거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중앙에 작은 오두막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외관의 건물에는 이전에 그 장소에 서 있었던 집의 불단이 들어 있으며, 생존해 있는 자손이 이 건물을 극진히 돌보고 있습니다.

불의 신을 기쁘게 하다

게라마의 오래된 집은 법률에 따라 방 배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방인 이치반자는 손님을 맞는 동시에 부모님이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니반자(두 번째 방)는 여성과 아이들의 방이고, 산반자(세 번째 방)는 조부모님을 위한 방이었습니다. 집 왼쪽 안의 공간은 우라자(뒷방)라고 하며, 곳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이로리(마룻바닥을 사각형으로 파내고 취사나 난방용으로 불을 피우는 장치) 가까이에서 생활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나나 섬유로 짠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의복은 면이나 양모만큼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추운 시기에 열원이 필요했습니다. ‘신의 돌’이라고 불리는 돌은 이로리 귀퉁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이 따뜻하(좋)지만, 동시에 파괴적이(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불의 신(오키나와 말로 히누칸)의 분노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행동이며, 돌은 신을 회유하기 위한 일종의 공물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불을 ‘막기’ 위해 부뚜막에 물 수(水)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키나와의 많은 가정에서는 부엌에서 히누칸에게 한 잔의 물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히누칸은 불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또한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고리

다카라가 주택의 바로 뒤에는 별채가 늘어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돌
울타리는 돼지우리이지만 다른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오두막의 앞벽에서
튀어나와 있는, 쭈그리기에 딱 알맞은 높이의 돌로 된 수로는 옥외 화장실입니다. 집
주인은 돼지우리를 향해 직접 배설했습니다. 대변은 돼지들이 먹었고, 그 돼지는
주인들이 먹었습니다(돼지는 사교야자 등 다른 것도 먹었습니다).

SUGGESTED PHOTO(S)

1. External view of house (Hero image)
2. Collage showing: Wall; Roof; View under house; Deep Eaves; Pillars
3. Drawing of sleeping figures superimposed on house layout
4. Buddhist altar
5. Irori hearth and stones
6. Kitchen and “Mizu” carving
7. Pig sty and toilet